

“손빨래 안 해도 되니 살겠어요”

재능기부 스토리

홀로 사는 60대에 냉장고·세탁기 지원

인플루언서 ‘슈가토끼’ 기부부터 돼지저금통까지 훈훈
외국인 노동자들 처음 겪는 겨울... 겨울옷 기부받아요

전남광주 맛집을 소개하는 ‘슈가토끼’ 이다경 대표님께서 광주재능기부센터 유 연숙 이사님의 소개로 광주재능기부센터에 100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이다경 대표님은 기부금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다경 대표님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12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전남광주 맛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동참해주신 이다경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망교회 김병배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모아온 동전을 기부하기 위해 광주재능기부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동전을 세어 보니 금액이 42만 4020원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동전을 정성스럽게 모아오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고 계시는 소망교회 김병배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공유센터와 영광군 가족센터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공유센터 이용 대상이 광주광역시 시민에서 전남광주 특별시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 가족센터와 협약을 맺고 공유문화 활성화와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수행을 위해 인

적·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가족 건강성 향상과 가족 문제에 대한 통합적·예방적 서비스 연계에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광군 가족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171 유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희령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은 다양한 수상으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다문화인권 문학상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영광군 가족센터와 광주 공유센터가 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제14회 ‘겨울옷 나눔 행사’가 열리는데,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까지 겨울옷을 기부받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359-1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선불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공유센터와 영광군 가족센터(장희령 센터장·왼쪽) 간의 업무협약식

습니다.

한국에 와서 겨울을 처음 겪고, 눈을 처음 보고, 추위도 처음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겨울이 유독 힘들게 느껴집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옷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대 김모 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세 곳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간경화와 그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파킨슨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치매를 앓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 간에 재산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김 씨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현재는 김 씨를 지지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LH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면서 거주를 위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살림살이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가구나 가전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형편도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가 없어 식재료와 반찬 보관이 어려워 식생활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 질환과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손빨래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 세탁기를 구입해 설치했고,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냉장고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김 씨는 힘들게 집을 마련했지만 살림살이가 없어 생활이 너무 불편했는데, 냉장고와 세탁기가 생겨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새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동전으로 42만 4020원을 기부한 소망교회 김병배 목사(왼쪽)

40대 결혼이주여성 A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A 씨는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으며, 이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주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는 지적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 긴 시간 일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긴급지원을 신청했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월세로 살고 있는 2층 주택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수로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위생상 문

제가 있어 보였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없어 외풍이 심해 자녀들이 추위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에 ‘행복한 목수’ 사업을 통해 도배 공사를 해 분위기를 바꾸고, 누수 방지 공사로 물이 더 이상 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창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풍을 차단했습니다.

A 씨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 지금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집이 깨끗해져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도 매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과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힘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431-0918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